

19th Story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Crucifixion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 19th Story -

나레이션

예수님은 로마군인들에게 얻어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보며 웃었고 침을 뱉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낡은 보라색 가운을 입혔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고
절을 했어요.

군인들
나레이션

국왕 만세! 유대의 왕 만세!!하하하하하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짊어
지우고, 높은 언덕을 향해 걸어가게 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옮기기엔 이미 너무 지쳐있으셨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옆에서 걷고
있던 한 남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를 불렀어요.

군인
시몬
군인
시몬

거기! 당신 이름이 뭐가?
저요? 어.. 저는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리 와서 이 남자가 십자가를 옮기는 걸 도와주시게!
저는..아...알겠습니다...

나레이션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있는 동안, 수많은 백성들과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약해졌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배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
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 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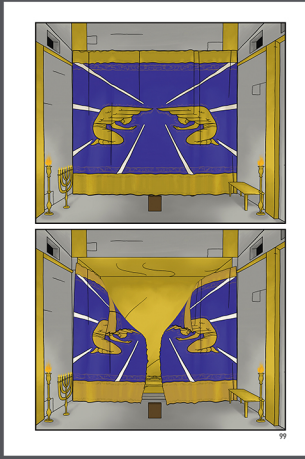
군인들
나레이션

이봐 당신!!! 이야기는 그만하고 계속 움직이라구!!
군인들은 예수님을 이끌고 골고다, 곧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때 그들은 시몬을 보내고 예수님께 신맛이 나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맛을 보시고 더 이상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 나레이션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고 십자가를 세웠어요.
- 예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 나레이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어요.
- 군인들 이걸 누가 가질래?
- 군인 1 난 빨간 옷을 가질게.
- 군인 2 돈을 먼저 내야지.
- 나레이션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에는 2명의 또 다른 죄수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쪽에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의 죄수가 예수님을 모독하며 말했어요.
- 군인 1 이봐,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 군인 2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 분은 아무 것도 잘못된 일이 없어. (공손하게)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주십시오.
- 예수님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 군인들, 무리들 이봐 예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해봐라! 이 자가 남을 구원했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 나레이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단히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고 농담을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울었어요. 모든 곳이 밤처럼 어두워지고 마침내 예수님이 소리치셨어요.
-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 무리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빨리 저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시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 나레이션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마시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 예수님 다 이루었다..



나레이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어요. 그 때에 성전에 드리워졌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어요. 온 대지가 흔들리고 바위들이 쪼개졌어요.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백부장

참으로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나레이션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내려졌어요. 그 가운데 아리마대에서 온 사람인 요셉이 있었어요. 그는 부자였고 그가 사는 동네의 존경 받는 의회 의원이었어요.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했어요. 요셉은 삼베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베로 싸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러 막아 놓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